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 이단 주의(注意)
- 교회에서 허락되지 않은 성경공부, 기도, 집회참석, 금전거래 금지
강요 강매, 동업 및 갑과 을의 관계로 연결되어짐 유의
- 본교회의 소속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교단입니다.
- 표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수 1:2)
- 테바운동 진행을 위해 기도 부탁 드립니다 (www.teba.or.kr)

- 교육부서 지도자 모임 : 17일(주일) 점심식사 후 : 교육과정 논의
- 장로 안수집사 모임 : 31일(주일) 오후 5시 : 테바사역 논의
- 이창훈 강도사 휴가 : 11일(월) - 15일(금)
- 수도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월례회 : 11일(월) 수원시민교회
- 서부시찰 목사부부 기도회 : 12일(화) 오전 11시 본교회
- 수도노회 주일학교연합회 성경필사 대회
 - 범위 :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 대상 : 유치부, 초등 1,2학년, 초등 3,4학년, 초등 5,6학년
 - 기간 : 9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노회 어린이대회 시 제출)
 - 접수마감 : 8월 15일까지
 - 유의사항 : 연합회에서 배부한 필사노트만 인정
- 점심식사가 3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회

- 매일 기도회 : 새벽 5시, 밤 9시 5층 예배실
- 금요 기도회 : (금) 밤 9시 5층 예배실
- 대학부 기도회 : (금) 밤 10시 30분 2층 교육관
- 중, 고등부 S.F.C. 기도회 : (주일) 저녁예배 후 5층 예배실
- 1권사 기도회 : 매주(토) 오전 10시 4층 휴게실
- 2권사 기도회 : 매주(금) 오후 8시 4층 휴게실

- 불우이웃구제 : 조태야 유순애
- 성도점심접대 : 조준희 조현희
- 새가족 : 이 원, 최정옥, 이윤선, 이지선(능곡)



"바른교회 · 좋은교회"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주도했던 종교개혁의 중심사상으로 무장하고서 로마 카톨릭교회의 비성경적인 신앙노선과 타협했던 영국국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시도가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청소(Purity) 하지는 것이었기에 사람들은 이들을 '청교도들'(puritans)이라고 불렀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국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에 미국을 건설하고 영적 대각성운동과 노예해방운동, 종교, 사회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00여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초기 한국교회의 부흥운동과 사회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중심, 성경중심 신학사상은 바로 청교도사상의 핵심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중심, 성경중심 사상을 가지고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기 원하는 청교도의 후예들입니다.

시흥성문교회는 청교도 전통인 장로교회 정치를 따르며,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 신학에 근거한 아래와 같은 신학을 추구합니다.

-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 Deo Gloria)
- 오직 은혜 (Sola Gratia)
- 오직 그리스도 (Solus Christus)
- 오직 믿음 (Sola Fide)
-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시흥성문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교회에 무어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명(마 9:35)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종교개혁자들, 범위를 더 좁혀서는 청교도들이 실천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길을 가기 원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시간

매일 기도회	새벽 5시, 밤 9시	유치 1부	오전 9시
주일 낮 예배	1부 7시 30분	유치 2부	오전 11시 30분
	2부 11시 30분	유년·초등부	오전 9시
주일 저녁 예배	오후 7시	중·고등부	오전 9시 30분
수요 예배	오후 7시	청년·대학부	오후 1시 20분

교회 오시는 길



교회설립 : 1999. 4. 10

2014. 8. 10.

교육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마 9:35)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시흥성문교회
 RIGHT CHURCH · GOOD CHURCH

담임 목사 이근행
 파송선교사 김대중 이남재 서경삼 박빌립
 장로 김경섭 정태술
 강도사 이창훈 송태경 교육전도사 정성호
 사역자 이계숙 정복희

429-250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11-1
 교회 (031) 317-5883 FAX (031) 318-5883
www.powersm.org E-mail: powersmorg@gmail.com

주일 낮 예배

1부 / 오전 7:30
S.F.C. / 오전 9:30
2부 / 오전 11:30

사 회 : 설 교 자

예배로의부름 ----- 다 같 이
찬 송 ----- ㉔ 1 (새 1) ①② 14 (새 26) ----- 다 같 이
교 독 문 ----- 십계명 ----- 다 같 이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337 (새 279) ----- 다 같 이
기 도 ----- 구 예 은 학 생
합 심 기 도
찬 양 ----- "주 찬양하라" ----- 예루살렘찬양대
성 경 ㉔ 느헤미야 8:1-12 (구약 P. 738) 사 회 자
1,2부 창세기 3:21 (구약 P. 4)
설 교 ㉔ "세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송태경강도사
1.2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 이근행목사
봉 헌 --- ㉔ 500 (새 446) ①② 450 (새 395) ----- 다 같 이
찬 송 ----- 450 (새 395) ----- 다 같 이
축 도(주기도) ----- 설 교 자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알려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아비에게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삼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 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육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 칠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 팔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 구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 십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지니라.

주일 저녁 예배

오후 7시 사 회 : 송태경 강도사

예배로의부름 ----- 다 같 이
찬 송 ----- 411 (새 563) ----- 다 같 이
기 도 ----- 최 형오 집사
성 경 ----- 요한일서 2:7-11 (신약 P. 389) ----- 사 회 자
설 교 ----- "사랑의 새 계명" ----- 송태경강도사
찬 송 ----- 347 (새 212) ----- 다 같 이
광 고 ----- 사 회 자
주 기 도 ----- 다 같 이

매일기도회

새벽 5시 밤 9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봉 사 위 원(총칭생략)

	안 내 위 원	봉 헌 위 원	저녁 예배	사역자
1부	예배위원	예배위원	다음주일안내	이규철 김바다 3여
2부	이상겸 이현주 3여	조정순 이병순 추명애		
차량	박원규 양선준 이윤우 윤재근 김대형 김창길 윤삼구 이규철 허강수 방성근 문인권 엄명화			

구 분	주 방	2부 예배 기도	주일저녁예배 기도
이 번 주	9 20구역	합심기도	최 형 오
다 음 주	21 23구역	김 경 섭	박 원 일

차량 시간표

구 분	대우	금호	태평	동아,성원	장곡	대동,청구	능곡
새 벽 예 배	4:46	4:45	4:43	4:50	4:40	4:45	
유,초 등 부 예 배	8:40	8:41	8:43	8:40	8:45	8:45	8:40
중,고 등 부 예 배	9:10	9:12	9:17	9:10	9:12	9:16	9:10
주 일 낮 2부 예 배	11:10	11:12	11:15	11:10	11:10	11:15	11:10
주 일 저 녁 예 배	6:40	6:42	6:45	6:45	6:30	6:40	6:40
수 요 저 녁 예 배	6:40	6:42	6:45	6:45	6:30	6:40	
주일 낮 2부 예배 후 1회, 점심 식사 후 1회 차량 운행함							

믿음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주일을 지키고, 적당히 사명수행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열심 있는 모습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별 것 아닌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이내 넘어지고 쓰러져 울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남과 비교하면서 더 많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조바심으로 있다가, 어떤 상황에서는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생각에 위험한 우월의식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자신의 실상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는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벗은 몸을 보고, 이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지만, 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나"를 주인공이라며 모든 중심에 세우려고 합니다. 내가 좋은 것, 내가 선택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내 생각, 내 결정, 내 형편 등 모든 것을 모아 "진리"라는 자리를 두고는 나를 비취보게 하고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좋을 때는 순교라도 할 것 같은 신앙인처럼 살다가도 내가 힘들 때는 모든 것을 주저함 없이 버리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행사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대로, 유치부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하는 행사를 이기고 성경학교에 나오는 것이고, 유.초등부 친구는 노는 것과, 중.고등부 학생들은 공부와 친구를 차선으로 한 것, 대학부 학생들은 스펙 쌓기와 아르바이트를 뒤로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 속에 자신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그렇게 지도했던 부모까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명수행 속에서도 "나"라는 존재를 살펴볼 때, 어느 누구도 온전한 모습이었다고 자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찢겨지고 헤어져서 누더기처럼 남루한 옷을 걸친 모습만을 발견할 뿐입니다.

자기중심으로 살면서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자기가 이론 것들에 너무 집중하는 것과 이와는 반대로 자기를 너무 비하하는 것은 모두가 "자기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연약한 나에 대한 묵상과 주목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직 믿음"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근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방향으로 인도해야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고 성숙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백선화 집사 -